

2011 연세대 인문

논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보여준다.

제시문 (가)에서 인간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을 수용하여 인간됨을 이루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죽은 자를 매장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죽은 자를 잊으려 하지 않고 인간성 실천의 의미를 찾는다. 또한, 죽음을 기피하고 무시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여 자연질서에서 벗어나려 시도한다.

제시문 (나)에서 고릴라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마체사가 죽자 이카루스와 다른 고릴라들은 집단적으로 반복하여 공격을 한다. 이는 마체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례적인 반복 공격을 통해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카루스는 마체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그녀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통해 고릴라들은 그들의 집단 내에서 발생한 죽음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격행위를 통해 일말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

제시문 (다)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살아있을 때의 모습에 관계없이 죽으면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해골이 된다. 즉 누구나 죽게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에 사람들은 사체를 묘지로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불품없고 끔찍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은 인간을 두렵게 한다. 이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예측되는 죽음에 대해 비탄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에 애착을 가지게 한다.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 하게 된다.

이처럼 제시문 (가)는 죽음을 수용하는태도를 보여 주고 제시문 (나)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제시문 (다)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논제2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을 보면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을 수용하고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라)의 실험 1과 실험 2는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을 보면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은 죽음에 대한 연상을 기피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사람들이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죽음의 결과를 예상하기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제시문(라)의 실험 1과 실험 2는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은 죽음에 대한 연상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는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1, 실험 2 결과 모두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은 죽음에 대한 연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가 추악하고 혐오스럽더라도 결국엔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다. 이러한 필연적 관계를 안다면 배설물을 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시문 (가)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따, 죽음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통해 인간됨을 완성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특수한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자연적 질서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에 대해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 죽음에 대한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배설물을 보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